

#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1) 그레함 리(Graham Lee)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정 창 원

(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 技術補佐員)

주제어 : 기독교, 미션건축, 개척선교사, 그레함 리(Graham Lee)

## 1. 서론

개항이후의 한국은 기존의 건축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외래요소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변화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한 외래요소중의 하나로 기독교의 전래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1884년에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 미션의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로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1910년의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는 한국교회의 급성장에 대하여 「근대사에 놀라우리 만치 훌륭한 업적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사업이 평화적인 혁명을 이룩하였다」<sup>1)</sup> 라고 표현하는 등, 경이적인 성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듯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기독교를 위한 건축, 즉 미션건축의 발전을 동반하였고, 이러한 미션건축은 한국에 있어서 근대건축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큰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카톨릭 미션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프로테스탄트 미션의 건축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강점기의 한국 건축계에 있어 또 다른 서양건축문화의 전이 루트였으며, 한국건축의 근대화, 서양화를 주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sup>2)</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근대건축에 관한 기존연구에 있어서 카톨릭 미션의 경우는 명동성당 등을 설계한 프랑스인 신부 코스트(Eugene-Jean Georges Coste) 등, 미션건축에 관여한 성직자들의 활동에 대해 연구가 진척되어있음에 비해, 프로테스탄트 미션의 경우는 선교사들의 건축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미션건축에 관한 기존연구<sup>3)</sup>에서는 교회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축유형에 대한 분석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종교를 위한 예배공간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반면, 그러한 건축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서양인 선교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

2)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카톨릭, 프로테스탄트(개신교), 그리고 이들의 중간적 성격이 강한 영국 성공회 등, 서양종교와 관련된 건축을 본 연구에서는 일본계통의 근대건축과 구별하겠다는 의미에서 「미션건축」이라고 표현하였다.

3) 신인제, 「선교초기 한국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1985년 서울대 석사논문  
김성환,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1988년 서울대 석사논문  
홍순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 변천에 관한 연구」, 1991년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김승배, 「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건축 수용에 관한 연구」, 1999년 단국대 박사논문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2002년 충북대 박사논문

1)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년, p.2

제로 인해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축물이 누구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왜 그런 형태로 완성되었는지 등의 부분까지 깊이 논의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에서 서양식 건축으로 발전해 가는 변혁기에 있어서 한국 미션건축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게 되었고, 초기의 프로테스탄트 미션건축을 이끌고 나간 「개척선교사(Pioneer Missionary)」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초기의 한국 미션건축과 관련하여 활동한 개척선교사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한국 미션건축의 발전과정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개척선교사들에 의해 나타난 한옥건축의 변화를 통해 기존 건축문화와의 단절이라고 평가를 받아 온 한국근대건축사 연구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겠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활동의 보고서 성격으로 출간된 월간 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년)」를 비롯하여, 각 미션 종파의 연보고서 등, 당시의 1차 문헌자료의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사 관련 출판물과 각 교회와 미션스쿨 등 미션관련 기관에서 간행한 역사서도 참고로 하였다.

특히 월간 미션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는 1905년 11월부터 발간되어 1941년까지 한번도 휴간되는 일없이 매월 발행되었다는 점, 일개의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서 활동한 프로테스탄트 미션 각 종파의 선교사들의 활동보고와 관련소식 등을 종합적으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자료라고 하겠고, 본 연구에서는 이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통해 당시 한국에서 미션건축활동에 종사한 수명의 개척선교사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들 중에서 초기의 건축활동에 두각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 도편수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남긴 그래함 리(Graham Lee)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그래함 리의 미국에서의 경력과 내한과정<sup>4)</sup>



[그림1] 그래함 리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7년 4월호)

그래함 리(Graham Lee, 한국명: 이길함, 그림1)는 1861년 6월 2일, 일리노이주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시절을 록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그는 졸업 후에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콜로라도에 있는 한 목장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몇 년간 목축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리스천으로서의 신념을 확신하였고, 남은 교육과정을 마치겠다고 결심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확고부동한 그의 결심은 대학에까지 진학하겠다는 목표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던 그로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그는 학비 마련을 위해 배관공(plumber)으로 일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실기적인 기술의 습득은 나중에 그가 건축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실기적인

4) 그래함 리의 경력에 대해서는 「Rev. Graham Lee, D. D.」, 「The Korea Mission Field」, 1917년 4월호, p.86-87을 참고로 하였다.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개척선교사로서 활약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었다.

배관공으로 활동하며 모은 학비로 그는 시카고 근교의 레이크 포레스트(Lake Forest)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재학 도중에 뉴저지주의 프린스턴(Princeton)대학으로 옮겨 1889년에 「The Literature and Art Course」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 하트포드 신학교(Hartford Theological Seminary)에서 1년간을,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McCom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과정을 수료하였다. 맥코믹 신학교는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다수를 배출한 신학교였는데, 그래함 리도 졸업과 동시에 동급생인 W. L. 스왈렌(Swallen), S. F. 무어(Moore), L. B. 테이트(Tate)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어졌다.

1892년 9월, 드디어 그는 한국의 땅을 밟게 되었다. 그가 내한한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소수의 선교사밖에 없었고, 교회도 6개정도 밖에 설립되어있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선교사 S. A. 모펫(Moffett)과 더불어 중요한 선교활동의 거점도시, 평양 미션 스테이션<sup>5)</sup>을 개척할 개척선교사로 지명되었다. 그 준비과정으로 그는 우선 2년간 서울에 체재하면서 한국어 학습과 더불어 연동교회를 담당하였고, 또한 수 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조사 여행을 떠나는 등, 평양에 선교기지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북장로교의 평양 스테이션 설치는 그래함 리에 앞서 모펫과 J. H. 웰스(Wells)가죽이 미션 컴파운드<sup>6)</sup> 안에 있던 기존의 한옥주택에 이주한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그도 1895년 가을에 평양에 합류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합류하여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평양 스테이션의 개척도 본격화되었다.

### 3. 그래함 리의 건축활동

그래함 리가 평양에서 담당한 건축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 절에서는 이들 각 건축에 대해 선교사 주택, 송실학당, 라드병원, 장대현교회, 기타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표1] 그래함 리가 평양에서 담당한 건축

| 용도                     | 건물명                                      | 준공년도       |
|------------------------|------------------------------------------|------------|
| 그래함 리가 설계·감독한 건축       |                                          |            |
| 선교사 주택                 | 웰(Well) 주택                               | 1898년      |
|                        | 모펫(Moffett) 주택                           | 1899년      |
|                        | 스왈렌(Swallen) 주택                          | 1899년      |
|                        | 베어드(Baird) 주택                            | 1900년      |
| 교회                     | New Woman's Chapel                       | 1900년      |
|                        | 장대현교회 (Pyeng Yang Central Church)        | 1900-01년   |
| 학교                     | 송실학당 (Pyeng Yang Academy)                | 1902년      |
| 병원                     | 라드병원 (Carolina A. Ladd Hospital)         | 1906년      |
| 그래함 리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축 |                                          |            |
| 학교                     | 안나 데이비스 기념공작소 (Anna Davis Memorial Shop) | 1902, 03년? |
|                        | 평양신학교 (The Theological School)           | 1908년 기공   |

5)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 선교사가 상주하면서 활동을 한 선교활동의 거점도시로서 당시의 선교사들은 그 거점도시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였다. 미션 스테이션은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정착한 서울에서 시작하여 각 선교단체의 입국과 선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그 수가 증가되는데, 1916년에 설치된 철원 스테이션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총 30개의 미션 스테이션이 설치되었다.

6) 미션 컴파운드(Mission Compound): 미션 스테이션이 선교사가 상주하며 활동하는 거점도시를 칭하는 표현이면, 미션 컴파운드는 그 거점도시 안에서 선교사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구입한 선교부지(선교촌)를 가리킴.

#### 3-1. 선교사주택

평양 스테이션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평양에서 최초로 건설된 선교사주택의 빌더로서 건축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 완성된 「웰(Well) 주택」의 건축을 비롯하여 「모펫(Moffett) 주택(1899년)」, 「스왈렌(Swallen) 주택(1899년)」, 「베어드(Baird) 주택(1900년)」 등, 평양에 세워진 선교사들의 주택 건설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고 한다.<sup>7)</sup>

또한 북장로교 평양 스테이션의 1900년도 연보 고서에는 같은 해에 완성된 건축으로 「웰(Well) 주택」, 「헌트(Hunt) 주택」, 「New Woman's Chapel (한국명 불명)」이 보고되어 있는데, 헌트 자신이 건축한 「헌트 주택」 이외의 그 전부를 그 래함 리가 건축하였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sup>8)</sup>, 북장로교의 평양 스테이션의 건설은 그 래함 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2] 베어드(Baird) 주택(1900년)  
(출전: 『송실대학교 100년사』)

이들 그 래함 리가 설계한 선교사 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사진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1900년에 완성된 「베어드 주택」(그림2)이 있다.

「베어드 주택」은 외관만으로 볼 때 기존의 한옥건축을 토대로 하였고, 그 속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중앙에 박공지붕으로 돌출시켜 계단을 설치한 부분은 서양건축에 있어 페디먼트가 설치된 현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현관을 강조하기 위해 정면에 박공형태의 지붕이 등장하였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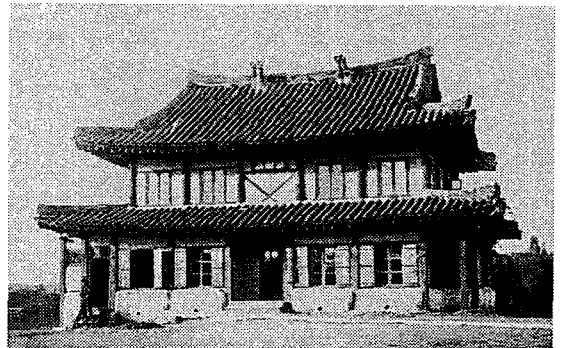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초기에 한옥으로 계획된 선교사 주택은 부분적으로라도 주택을 사용할 서양인 선교사의 생활에 맞추어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논할 수

가 없다. 단,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개괄적인 내부의 모습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07년의 평양을 묘사한 기록에 「북장로교의 평양 미션 컴파운드에 있는 모든 선교사주택은 흙벽에 기와를 얹은 한국식건축(style of Korean architecture)으로 건설되어져 있다. 이들 주택의 외관은 기묘한 인상을 주며, 건물자체가 불안정해 보이기는 하나, 내부는 견고한 미국식 주택(American home) 그 자체다.<sup>9)</sup>」라고 서술되어져 있어, 한옥건축을 의식하여 외관을 계획한 선교사 주택의 내부는 철저하게 미국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래함 리에 의해 평양에서 계획된 선교사 주택 전부가 한옥의 외관에 실내를 미국식으로 구성한 한양절충양식의 주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그림2]의 베어드 주택과 유사한 스타일의 주택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2. 송실학당

송실학당(Pyeng Yang Academy)은 1897년에 선교사 베어드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의 주택 사랑방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송실학당은 1901년에 새로운 교사 건축에 착수하였는데, 그 래함 리는 그 첫 교사건축을 [그림3]과 같이 한옥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기존의 한옥건축에 드물었던 2층 구조로 계획하였다.



[그림3] 송실학당(1902년)  
(출전: 『송실대학교 100년사』)

이와 같은 2층 구조의 건축은 한옥건축에서 양식건축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양절

7)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898년도, p.27

8)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900년도, p.31

9) 『City of Pye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 (1907년 10월호), p.15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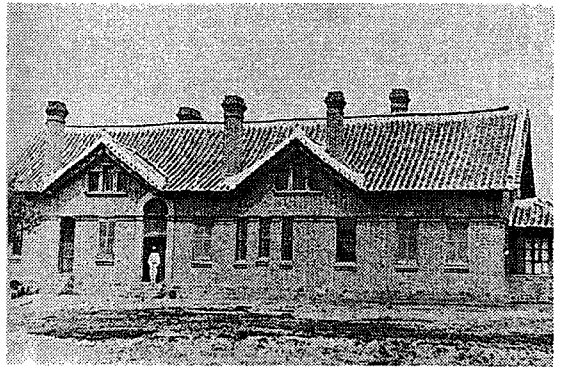
층건축의 특징의 하나로, 그레함 리에 의해 탄생한 숭실학당이 미션건축에 있어 그 최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1층은 교무실 하나와 교실 5개, 2층은 전체를 강당으로 사용한 숭실학당은 다음과 같이 1902년의 완공당시를 회상한 기록 「숭실학당의 교사로 사용할 조선인 이층 건물이 낙성될 때 평양에서 처음 보는 집이라 평양성내 성외에서 모두 놀랐다. “저런 집을 지어서 어데 쓸고? 양코들의 작란 우습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평양에는 높은 건물이란 대동문과 보통문, 서문 등이 있을 뿐이오 2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sup>10)</sup> 을 통해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한국에 있어서 2층 구조의 건축은 앞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동문과 같은 성곽건축 등에서 볼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는 채용되지 못했다. 이처럼 기존의 주거용의 한옥건축에 있어 2층 구조가 발달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 온돌이라는 바닥난방을 2층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난방방식의 문제는 개항이후 한국에 서양인이 입국함과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폐치카와 벽난로와 같은 새로운 난방장치가 도입됨으로서 숭실학당과 같은 2층 구조가 계획 가능하였고 발전해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새로운 난방방식의 채용은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굴뚝을 등장시켰다. [그림3]과 같이 숭실학당의 지붕에 세워진 굴뚝이나 앞서 소개한 [그림2]의 베어드 주택의 지붕 굴뚝과 같이 굴뚝이 기와지붕을 뚫고 나오는 형태가 바로 그것이며, 이 또한 한양절충건축의 특징중의 하나라고 본다.

참고로 이러한 굴뚝의 등장이 한옥의 지붕 형태에 미친 영향은 북장로교 소속의 개척선교사 C. A. 클락(Clark)이 설계한 대구의 동산병원(그림4)을 보면 확인하며, 각 실에 필요로 하는 난방장치의 굴뚝이 불규칙적으로 지붕을 뚫고 나와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4] 대구 동산병원  
(출전: 『동산의료원 100년』)

### 3-3. 라드병원

라드병원(The Carolina A. Ladd Hospital)은 1894년에 평양에 의료선교사가 파견된 직후 미국에서 1500달러의 원조를 받아 소규모의 병원과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1895년의 설립당초의 병원은 「점토와 곡물의 줄기 등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건물이었다고, 작은 수의 기둥이 무거운 기와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건물」<sup>11)</sup> 이었다고 한다.

그 후 오래근주 포트랜드의 Caroline의 기부금 7000달러로 새로운 병원을 건설할 수 있었고, 그 건축을 그레함 리가 담당하였다. 새로운 병원은 진료소와 2동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병동의 하나는 한국식으로 다른 하나는 미국식으로 계획되어 1906년 10월 15일에 봉헌식을 가졌다.<sup>12)</sup>

이 병원에 대해서는 사진기록 등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축과 설비에 있어서 한국에서 아주 완벽한 병원 플랜트였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3)</sup> 특히 한국식의 병동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을 채용하여 새롭게 조정하고 재구성한 것에 대해 칭찬할 만하다는 기록<sup>14)</sup> 에서 한양절충건축이었음을 추측

10) 「新文化의 溫床 大崇實의 黃金時代回顧」, 『東亞日報』, 1938년 3월 5일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숭실편』, p.100-101에서 재인용)

11) 「The Caroline A. Ladd Hospital Pyeng Yang - Report for Year 1908-9 May to May」, 『The Korea Mission Field』, 1909년 7월호, p.121

12) 「Dedication of The Caroline A. Ladd Hospital, Pyeng Yang,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9월호, p.217

13) 전계서 12

14)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907년도,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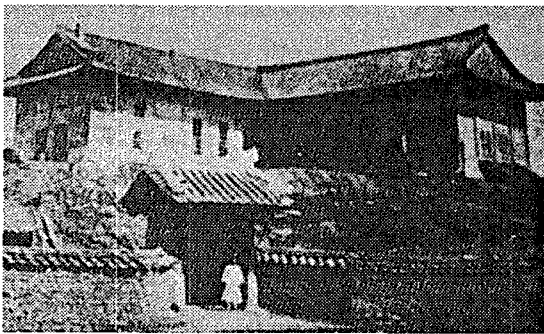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그레함 리가 평양에서 담당한 건축은 그 대부분이 한양절충양식이었다. 그 중에서도 건축규모에 있어서나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나, 그리고 한국인 도편수에 남긴 영향 등에 있어서 그레함 리의 대표작은 장대현교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4. 장대현교회

장대현교회(Pyeng Yang Central Church)는 평양에서 건설되어진 북장로교 최초의 교회였다. 그레함 리는 장대현교회에 있어서 교회건축은 물론이고, 목사로서 교회활동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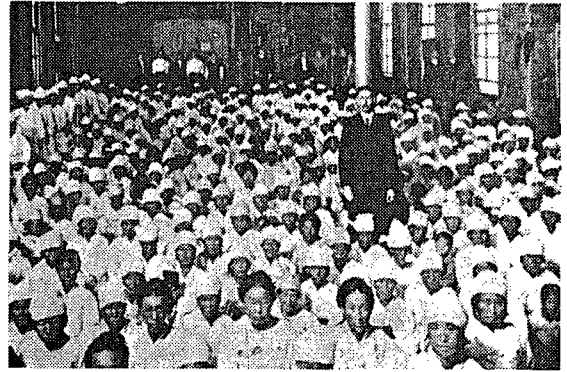
그레함 리에 의해 세워진 장대현교회의 특징은 당시의 한국건축에 있어서 정부관련의 건축을 뺀 한국 최대의 건축이었다<sup>15)</sup> 라는 기록과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속칭 「Great Central Church」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규모 건축이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림5] 장대현교회(1900-1901년)  
(출전: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개의 윙으로 구성된 [ㄱ자형] 교회로 한쪽의 윙에만 성인 15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규모로 일부에 2층 갤러리(gallery)도 설치되어져 있었다.<sup>16)</sup>

특히 1901년에 [그림5]의 모습으로 완성된 장대현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탄생한 본격적인 [ㄱ자형] 교회라는 점에서 한국 미션건축에서 있어 차



[그림6] 장대현교회의 여자석 내부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지하는 의의가 큰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전세계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 형태의 [ㄱ자형] 교회<sup>18)</sup>는 일찍이 한국교회사 연구자를 비롯하여 한국근대건축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의 윙에 남자석과 여자석이 나누어 배치되어져 있는 [ㄱ자형] 교회에 대해 그 탄생 이유를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의 영향으로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본격적인 [ㄱ자형] 교회로 탄생한 장대현교회에 대해 C. F. 번하이슬(Bernheisel)이 남긴 아래의 일기 기록<sup>19)</sup>을 통해 [ㄱ자형] 교회의 탄생 이유에 유교의 영향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①1900년 10월 28일자 일기

그레함 리의 초대를 받아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

17) [ㄱ자형] 교회에 대해 최초로 문헌기록에 등장한 것은 평양에 세워진 북장로교의 남산현교회(1895년)였다. 남산현교회는 1897년의 증축에 의해 [ㄱ자형]으로 완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에 탄생한 최초의 것이기는 하나, 규모가 작아 1903년에 새롭게 벽돌조로 장방형의 교회를 신축하였기 때문에 결국 초기의 [ㄱ자형] 교회는 단명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김성환의 연구(『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1988년 서울대 석사논문, p.67)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608년에 독일의 Freudenstadt의 교회에서 한국의 「ㄱ자형」과 유사한 「L자형」의 교회가 세워졌으나, 이들의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의 한국교회가 안고있던 급증하는 신자의 수용이라는 증축문제와 남녀 좌석의 구분이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고안된 「ㄱ자형」 교회는 한국 미션건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 「Forty Years Agone」, 『The Korea Mission Field』, 1940년 7월호, p.122, 「Forty Years Agone III」, 『The Korea Mission Field』, 1940년 9월호, p.156

15) 「Rev. Graham Lee, D. D.」, 『The Korea Mission Field』, 1917년 4월호, p.88-90

16) 「An Unusual Christmas Celebr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10년 3월호, p.66

배에 참가하였다. 그 교회는 도심의 중심부에 있고,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않은 새로운 교회로 평양에 세워진 유일한 북장로교 교회였다. 평양 시내의 다른 언덕 위에는 북감리교의 교회(남산현 교회)가 하나 있다.

②1901년 3월 19일자 일기

어제 (장대현)교회의 새로운 남쪽 윙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좌석 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한 공사다. 이 교회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

③1901년 6월 2일자 일기

새롭게 건설될 남쪽 윙에서 첫 예배가 그래함 리의 설교로 시작되었다.

즉 장대현교회는 1900년에 장방형의 교회로 출발하여 다음해에 남쪽 윙이 완성됨으로서 [ㄱ자형]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래함 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자를 수용하기 위해 증축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미션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ㄱ자형] 교회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 증축계획에 있어 그래함 리는 이전부터 한국의 교회에서 휘장을 사용하여 남녀의 좌석을 분리 하였던 습관을 [ㄱ자형] 으로 증축함으로써 2개의 윙에 남녀를 자연스럽게 분리하겠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ㄱ자형] 교회의 탄생에는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유교의 영향과 더불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급성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그림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함 리에 의해 평양의 중심부에 탄생한 거대한 [ㄱ자형] 의 장대현교회는 그 영향력이 막대하여 그 이후로 [ㄱ자형]으로 증축된 교회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ㄱ자형] 으로 계획된 교회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래함 리의 한국인 제자에 의해 [ㄱ자형]으로 세워진 함흥 중앙교회(1909년)는 장대현교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일례였으며, 이처럼 장대현교회에서 출발한 [ㄱ자형] 교회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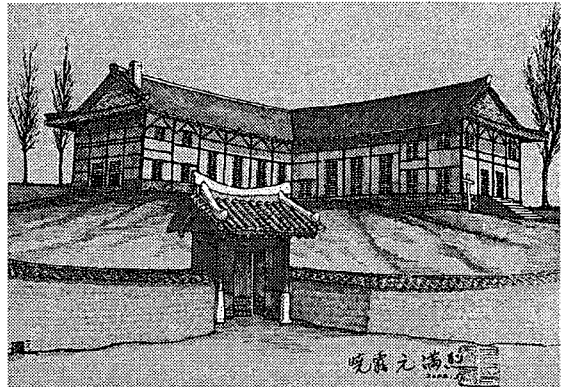
한편 그래함 리는 장대현교회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대공간을 한양절충건축으로 시도한 결과, 외관에 있어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새



[그림7] 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장대현교회  
(출전: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로운 요소를 도입하였다. 그것이 바로 유럽 기원의 하프팀버 구조 (half-timbered construction)의 등장이었다. 노출된 목조의 기둥과 횡부재, 그리고 가새(bracing)로 구성된 하프팀버 구조는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 있어 벽체의 목조 프레임 사이에 벽돌이나 진흙(mud plaster)등을 충전시켜 강도와 절연효과를 향상시키길 목적으로 정착된 건축 스타일로서<sup>20)</sup>, 기둥사이에 흙벽으로 충전된 한옥건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함 리는 [그림8]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높이를 가진 장대현교회의 거대한 벽체에 하프팀버 구조의 특징인 횡부재와 가새부재를 도입하였고, 이들 목조 프레임 사이에 한옥건축의 흙벽을



[그림8] 장대현교회의 스케치(원만희 화백)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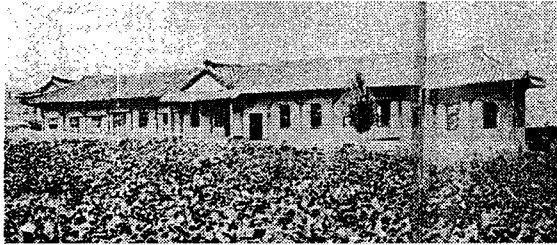
채용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벽체의 구성 수법

20) Cyril M. Harris, 『American Architecture』 1998년, p.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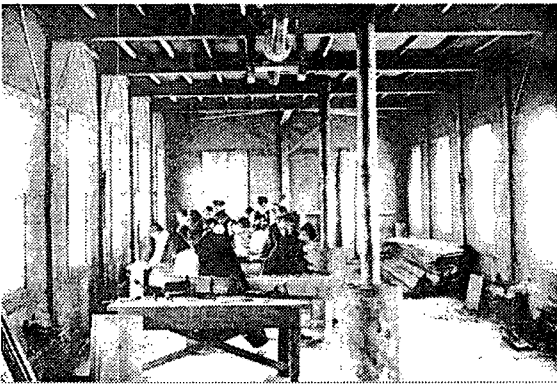
또한 그레함 리에게서 영향을 받은 한국인 도편수에 의해 전국 각지에 확산되어졌고, 그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3-5. 기타

이 외에 숭실학당의 기술교육을 위한 수공부(手工部) 시설로서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Anna Davis Memorial Shops)」(그림9, 그림10)는 그레함 리가 건축을 담당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가 당시에 수공부를 지도했던 점과 1902년에 미국에 있던 그의 친구 S. S. Davis가 5천달러를 기부하여 건설이 가능했다는 점<sup>21)</sup>에서 그레함 리가 건축을 맡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림9]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  
(출전: 『숭실대학교 10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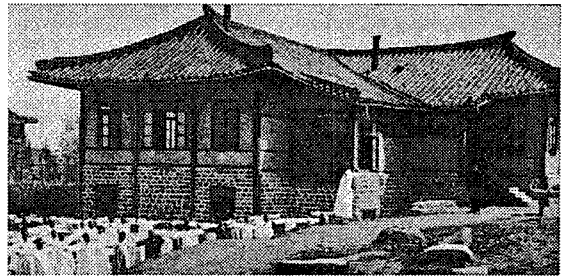


[그림10]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 내부  
(출전: 『숭실대학교 10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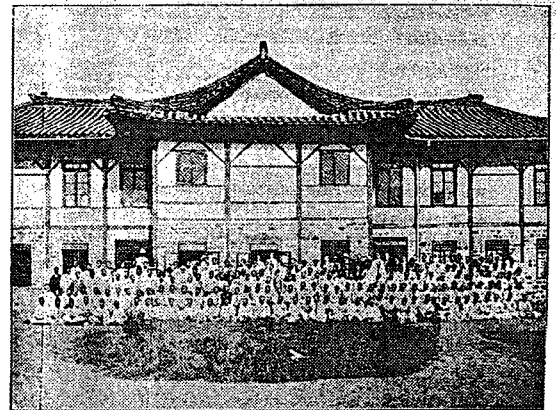
또한 설계자가 불분명하지만 1906년에 개교한 평양여학교(Union Academy)의 기숙사와 주택, 평양신학교(The Theological School)도 그레함 리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평양신학교는 그레함 리의 출신학교인 맥

코믹신학교의 맥코믹 부인의 기부에 의해 1908년에 정초식이 거행되었고<sup>22)</sup>, [그림11]과 [그림12]에서 알 수 있듯이 목조 프레임의 외관구성 등의 건축수법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장대현교회와 유사한 특징을 띄고있어 그레함 리가 계획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를 흙벽으로 충진한 장대현교회에 비해 평양신학교에서는 1층 부분을 석조로 충진하는 등 한층 더 발전된 하프타임버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1] 평양신학교(1908년 기공)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교향』)



[그림12] 평양신학교의 정면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11월호)

한편 1902년에 그가 첫 교사건물을 완성시킨 숭실학당은 1906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학교인 숭실전문학교(Union Christian College)로 발전하였고, 새 교사(그림13)가 1913년 6월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그레함 리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1912년

21) 『숭실대학교 100년사 (1)평양숭실편』, p.113

22) 『News Notes』, 『The Korea Mission Field』, 1908년 5월호, p.71



에 미국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새 교사의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으나, 새 교사 또한 한양절충양식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한옥건축양식을 채용해왔던 그래함 리의 건축과 토착교회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북장로교 평양 선교부의 건축관이 19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송실전문학교(1913년)  
(출전: 『송실대학교 100년사』)

#### 4. 그래함 리에 의한 건축교육과 한국인 도편수에 의한 한양절충건축의 시도

이상의 그래함 리가 담당했던 건축은 한국인 도편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대현 교회의 증축과정을 설명하였던 C. F. 번하이슬(Bernheisel)의 기록 중에 1901년 6월 25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장대현교회의 남쪽 wings의 공사를 맡았던 한국인 도편수가 파업이라는 것을 어디선가 배워와서 며칠동안 새 병원과 학교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오늘 그 도편수가 복귀하였고, 공사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sup>23)</sup>

즉 앞서 소개한 건물들은 그래함 리의 지도로 한국인 도편수에 의해 건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그래함 리가 협력자였던 한국인 도편수에게 남긴 영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4-1. 그래함 리에 의한 건축교육

그래함 리는 앞에서 살펴본 건축계획은 물론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축교육에까지 정열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는 송실학당의 수공부,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에서 1906년부터 1년간 목공과 제철공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등의 기초를 확립시켰다.<sup>24)</sup> 이 수공부는 1907년에 내한한 R. M. 맥머트리(McMurtrie)에 의해 더욱 발전하였고, 이곳에서 기본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경험을 계기로 후에 건축 청부업자로 성장하는 이도 탄생하였는데, 1933년에 완성된 벽돌조의 대구 제일교회의 시공을 담당한 김춘식이 그 일례일 것이다.<sup>25)</sup>

또한 그래함 리는 자신이 계획한 건축을 한국인 도편수와 함께 건설하면서 실질적인 건축교육을 하였다. 그의 건축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정밀하고 세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적당히 끝내는 일이 없었고, 이와 같은 그가 한국인 도편수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또 그 영향은 현재(1917년의 기록)까지도 남아있으며 그에게서 건축을 배운 도편수들은 재령, 선천, 강계, 함흥 등, 한반도의 북부 전체에 있어서 주택, 교회, 학교 등의 건축에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로 진출해 있다.」<sup>26)</sup>

이상과 같이 그래함 리가 한국인 도편수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 4-2. 백씨(Mr. Paik)와 함흥 중앙교회

그래함 리와 함께 건축활동에 참여한 한국인 도편수가 여럿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백(Mr. Paik)」이라는 성을 가진 도편수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함흥 스테이션에 있었던 초기의 교회는 한국에서 탄생한 대부분의 초기 교회처럼 기존의 한옥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약 3년 동안 신축할 교회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1908년 3월에 백씨에 의해

24) 「Pyeng Yang Academy」,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10월호, p.221

25) 「What is Interesting the Kore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1933년 7월호, p.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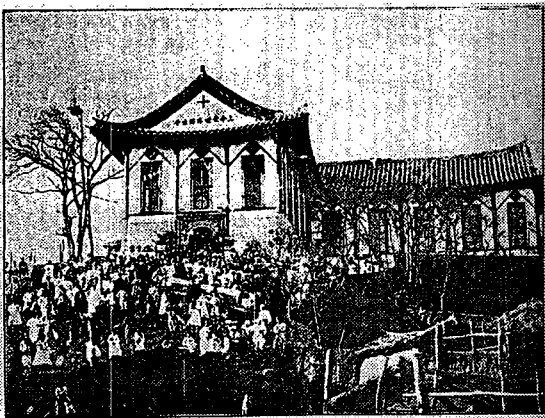
26) 전게서 15

23) 「Forty Years Agone III」, 『The Korea Mission Field』, 1940년 9월호, p.156

서 신축 교회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함흥 중앙교회를 담당한 백씨는 평양에서 근대적 건축수법(modern method of building)을 배웠다고 한다.<sup>27)</sup> 그리고 완성된 함흥 중앙교회의 건축수법과 앞에서 언급한 그래함 리의 제자들이 재령, 선천, 강계, 함흥 등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진출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그는 틀림없이 평양의 그래함 리에게서 서양건축술을 배운 것으로 확신된다.

1909년에 완성되어 같은 해 10월에 첫 예배를 가진 함흥중앙교회는 [ㄱ자형] 교회로서, 각각의 wings이 74×27ft.(22.2×8.1m)로 1000명 이상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리고 한쪽의 wings는 기초부분에 회의장소 겸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져 있었다.<sup>28)</sup>



[그림 14] 함흥 중앙교회(1909년)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09년 10월호)

이처럼 대규모의 교회건축에 있어 백씨는 평양에서 그래함 리가 계획한 웅장한 장대현교회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ㄱ자형]의 평면구성을 보면, 장대현교회가 장방형교회로 완성된 1년 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자를 수용하기 위해 [ㄱ자형]으로 증축되어 [ㄱ자형] 교회의 전형이 완성되었는데, 백씨는 처음부터 장대현교회를 모델로 하여 함흥 중앙교회를 [ㄱ자형]으로 계획하였던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림14]를 보면 백씨는 장대현교회와

평양신학교에서 채용되었던 하프팀버 구조를 함흥 중앙교회에 그대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새부재가 만나는 부분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이한 창을 의장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입구 디자인을 벽돌조 아치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한양절충양식으로 함흥 중앙교회를 완성시켰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하프팀버 구조의 가새부재가 가지는 의장적 요소와 다이아몬드 형태의 독특한 창은 한국인 도편수들에게 있어 서양을 의미하는 새로운 건축스타일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평양 근교의 강서군에 세워진 소규모의 탄포리교회(그림15)나 대동강 서쪽편의 강서교회(그림16)와 같이 규모에



[그림 15] 강서군 탄포리교회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그림 16] 강서교회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관계없이 구조적 기능보다 의장적 요소로 정착·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그래함 리가 가지고 들어온 서양의 건축요소는 한국인 도편수들에 의해 재해석되어

27) 『The Story of Ham Heung for The Past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1910년 2월호, p.35  
28) 전계서 26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의 한양절충건축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레함 리에 대한 평가와 귀국

그레함 리가 초기의 건축 대부분을 담당한 평양의 미션건축에 대해 A. J. 브라운(Brown)은 「평양 선교지부는 내가 두루 돌아본 훌륭한 선교회 건물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다. (중략) 주택은 정말로 바람직하게 안락하다. 학당 건물과 교회 건물은 멋있고 사용 목적에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 그리고 그 외곽선은 어떤 사람이 1/4 마일 떨어진 언덕 위에서 볼 때 결코 외국적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도록 토착 건물의 외부선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외모는 주재 넘는 이국풍이 없으며, 기독교 기관은 본질적으로 외국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없다.」<sup>29)</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레함 리의 동료인 모팻은 그에 대해 「그는 이상적인 개척선교사로서의 지식을 겸비한 탁월할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사람 (eminently practical man) 이었다.」<sup>30)</sup>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그레함 리의 노력과 성과는 높은 평가를 얻게되었고, 이러한 공적으로 그는 1910년에 모교인 레이크 포레스트(Lake Forest)대학으로부터 신학부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sup>31)</sup>

그러나 그는 2년 후인 1912년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미국에 귀국하게 되고 말았고, 귀국하는 그에 대해 선교부는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받았다고 하며,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의 귀국을 슬퍼하였다고 한다.<sup>32)</sup>

1912년에 한국을 떠난 그는 마지막 4년간을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복귀할 것을 꿈꾸며 건강회복에 전념하였으나, 결국 두 번 다시 한

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1916년 12월 2일에 타계하고 말았다.<sup>33)</sup>

### 6. 결론

이상으로 초기의 한국 미션건축을 이끌고 나간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대해 북장로교 소속의 그레함 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1892년에 내한한 그레함 리가 한국 미션건축사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평양의 중심에 세워진 한양절충양식의 웅장한 장대현교회를 [ㄱ자형]의 평면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한국 미션건축의 큰 특징중의 하나로 전세계 미션건축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의 [ㄱ자형]교회는 -그레함 리에 의해 본격적인 태동을 보게되었고, 광주 북문안교회(1906년), 함흥 중앙교회(1909년), 서울 묘동교회(1910년), 전주 서문교회(1911년)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그 외에도 그레함 리가 평양에 남긴 건축으로 평양에서 최초로 세워진 선교사주택을 비롯하여 베어드 주택을 포함한 선교사주택 4채, 숭실학당, 라드 병원, 그리고 그레함 리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와 평양신학교 등, 초기의 평양에 세워진 미션건축은 그가 대부분을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레함 리에 의해 완성된 이들 미션건축의 특징은 그 모두가 한양절충건축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건축이 결코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34)</sup> 그것은 그가 전문적으로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가가 아니며, 소년시절에 몸에 익힌 배관공(plumber)의 기술을 토대로 건축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선교활동이 최우선으로 요구되어졌던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모든 분야에서 뛰든지 다 해내야만 했던 초기 개척선교사의 건축이

29) A. J. Brown, 「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 Mission」, 1901, p.28 (「숭실대학교 100년사 (1)평양숭실편」 p.101-102에서 재인용)

30) 전계서 15

31) 전계서 15

32)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917년도, p.75

33) 전계서 15

34) 예를 들어 장대현교회에서 보이는 창외 배치는 필요에 의해 구멍을 뚫어놓은 것과 같이 전체적인 질서를 느낄 수 없으며, 목조 프레임을 사용한 벽면에는 하프 팀버라는 서양의 건축요소가 도입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무계획적인 횡부재와 가새부재의 배치 등에서 건축적 완성도가 높다고는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가지는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레함 리는 일반 선교사에 비해 「건축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실기적인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개척선교사로서 그 활약의 기초가 된 배관공의 기술」<sup>35)</sup>이라는 건축관련의 기술을 체득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숭실학당에 2층 구조를, 또한 장대현교회와 평양신학교 등의 대규모 건축에 하프팀버의 요소를 채용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기존의 한옥건축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바로, 그레함 리의 건축활동이 서양건축의 직설적인 이식이 아니라, 협력자인 한국인 도편수와 함께 한옥건축의 근대화, 서양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과 같은 건축활동을 통해 그레함 리는 한국인 도편수에게도 큰 영향을 남겼다. 그것은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당시의 문헌기록에 「그가 한국인 도편수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또 그 영향은 현재(1917년의 기록)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그레함 리와 더불어 건축활동에 참여하였던 한국인 도편수들이 한반도의 북부 전체에 있어서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는 기록을 통해 그레함 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양에서 근대적 건축수법을 배웠다고 하는 한국인 도편수 백씨(Mr. Paik)는 증축을 통해 「자형」으로 완성된 장대현교회를 모델로 삼아 함흥 중앙교회를 처음부터 「자형」으로 계획하였고, 2개의 가새부재가 만나는 부분을 다이아몬드 형태의 창이라는 기발한 의장 요소를 동원하는 등, 함흥 중앙교회를 장대현교회보다 한층 더 발전된 한양절충건축으로 완성시켰다. 이러한 발전 또한 그레함 리라는 개척선교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레함 리가 한국인 도편수에 남긴 영향 또한 그가 한국 미션건축에 기여한 큰 업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레함 리는 1907년 1월에 그가 담당하고 있던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기독교의 급성장에도 크게 공헌하는 등, 본래의 직분인 선교활동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남긴 선교사라 하겠다.<sup>36)</sup>

이상과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한국에 건너와 그 이후의 인생 전부를 한국의 복음에 기여한 그레함 리는 「자형」교회를 비롯한 한양절충건축의 확립이라는 건축적 측면과 한국인 도편수에 미친 영향이라는 교육적 측면 등, 초기의 한국 미션건축을 이끌어간 위대한 개척선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 <참고문헌>

1. 『The Korea Mission Field』 1905 -1941년, (영인본 全37冊: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행, 1986년)
2.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897 - 1909년, 1913-1919년
3.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4 - 1943년
4.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YMCA Press, Seoul, 1934년 (영인본: 한국기독교연구소 발행, 2000년)
5. C. A. Clark 『Digest of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 (Chosen)』, Korean Religious Books & Tract Society, Seoul, 1918년
6. Cyril M. Harris, 『American Architecture』,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98년
7.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년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2002년
9. 한영제,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기독교문사, 1986년
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 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년
11.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제2회 전시

역사 I』 2002년, p.268-273

35) 전계서 15

36) 전계서 1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 회 자료집 (비매품), 2002년
12. 同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 (1)평양 송실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13. 同편찬위원회, 『동산의료원 100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1999년
  14. 同편찬위원회, 『묘동교회80년사』, 묘동교회, 1990년
  15. 同편찬위원회,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년
  16. 同편찬위원회, 『진주서문교회 100년사』, 진주서문교회, 1999년
  17. 同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100년』, 대구제일교회, 2000년
  18. 신인제, 『선교초기 한국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년
  19.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사논문, 1988년
  20. 홍순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1년
  21. 김승배, 『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건축 수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9년
  22.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북대 박사논문, 2002년

# A Study on the Activity and its Influence of Pioneer Missionary in Korea Protestant Mission Architecture

-(1) Focused on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of Graham Lee-

Chung, Chang-Won

(Ph. D.,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 Abstract

Since Korea disclaimed to open the ports, Korean architecture has met the impetuous transformation. Although there would be various factors of this transformation, the new-coming architecture by missionary seemed to be a significant one,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is theme in diverse viewpoints. However, because these researches have preponderated on the Catholic tradition, it is deficient for clarify the whole history of mission architectur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to enrich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by making balance.

First of all,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one missionary, Graham Lee. He is a practical missionary at the beginning, his architecture made a critical influence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Graham Lee was born in Rock Island, Illinois, 1861, and he determined to become a missionary through grown up. He spent his boyhood by working as a plumber for his purpose and studied in a university afterward. Graduating of McComick Theological Seminary, he was nominated as a pioneer of Pyeng Yang Mission Station and set foot in Korea, September of 1892.

Since then he started to erect missionary facilities in Pyeng Yang, such as Well House(1898), Pyeng Yang Central Church(1900-1901), Pyeng Yang Academy(1902). These all his works are designed with eclectic style which shows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style intermingled. This unique characteristic made a profound influence to the Korean mission architecture afterwards. Especially, the L-type plan of Pyeng Yang Central Church, which is first shown by him, is recognized very unique, and this plan type had been spread all over the country. Therefore the L-type plan became the peculiar feature of the early Korean churches.

Furthermore, working with Korean carpenters, he taught them new skills of modern buildings. After that, they were expanded out northern part of Korea and took the roles of master builders. According to this expansion, his particular style had got spread and had been settled as a unique eclectic style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In the conclusion, he is evaluated to be a critical pioneer missionary, who left a big influence on the frame work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in the transitional times.

---

keywords : Mission Architecture, Pioneer Missionary, Graham Lee

---